

올여름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강화한다

- 폭염 대책비,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지원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최근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, 폭염 대책비를 지난해(150억 원)보다 대폭 늘려 올해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.
- 지원된 폭염 대책비는 ▲폭염 저감시설 확대(그늘막 등) ▲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(생수, 쿨토시 등) ▲무더위쉼터 관리·운영 등에 활용된다.
- 특히 독거노인, 쪽방주민과 같이 폭염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,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찰과 홍보 활동도 확대한다.
- 윤호중 장관은 “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길고 강해지고 있어, 기존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강화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”이라며,
- “특히, 폭염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피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(재난특교세)	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송상훈 (044-205-5110)
		담당자	사무관	류해춘 (044-205-5125)